

‘학생시인’ 황동규를 만나다

책으로 쓰는 자서전 — 5

김병익 | 문학평론가

“대학생이 되면서 원서를 사들이는 걸머도 부리기 시작했다. 광화문에 있는 범문사며 범한서적에 가면 이름만 알던 영어 원서들이 가득 진열돼 있었다. 나는 그 이름들만 알고 그들의 책을 구경한 적조차도 없었기에 마냥 마음이 혹해서 돈이 닿는 대로 그 책들을 사곤 했다. 물론 이런 책을 사기는 몇 해에 걸친 것이고 사놓고 보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지만, 몇 권의 책은 지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내게 깊은 인상과 영향을 줬다.”

나의 소년시절의 낭만적인 정서 속에서 시골의 작은 학교 교사생활을 해보고 싶은 꿈이 적지 않았지만, 가족이든 현실이든 찬성을 받을 성싶지 않았기에 나는 우선 대학은 문리대로 간다는 결정만 내렸다. 교회를 다녔지만 목사가 될 생각은 아예 없었고 문학이란 천재나 할 것이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는 감히 청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문학이나 인문학과 멀찍이 떨어진 학과, 그러니까 내심으로는 사학과나 사회학과를 지망하고 싶었다. 내 의견을 들은 형은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정치학과가 어떻겠냐고 권했다. 학문의 성격도 비슷한 사회과학이고 오히려 이 분야가 포괄적이어서 공부하기도 재미있을 거라는 의견이었다. 나는 과 선택에 아무런 고집이 없었기에 형의 그 권유에 응했다.

대학 입학시험을 앞두고 고3의 겨울방학부터 약 석달 동안의 내 수험 준비는 참으로 순조로웠다. 나의 ‘벨 에포크’와의 이별을 깊이 서운해하는 가운데 나는 매일매일 차분하고 풍성하게 시험공부를 했다. 초저녁에 짧은 잠을 자고 9시쯤 일어나 새벽 네댓시까지 교과서며 참고서로 공부하고 다시 새벽잠을 자고 아침 식사 후에 공부, 점심 후에 두어 시간 다시 공부, 그리고 내시

쯤에는 집을 나서 대전 시내 이곳저곳을 아주 한가한 기분으로 산책하고 돌아와 저녁 먹고 짧은 잠에 드는 일상이 주일을 뺀 주중 동안 거의 정확하게 반복됐다. 아무 고민도, 차질도 없이 평화롭고 유복한 기분들이었고 책을 읽으면 그대로 입력되고 문제를 푸는 데도 어려움이 없었다.

국비장학생으로 대학에 입학해

서울로 올라와 동숭동 서울대 뒤의 형님 하숙집에서 묵으며 시험을 볼 때도 그 평온하고 안정된 분위기는 그대로 계속됐다. 일곱개의 수학 문제 중 다섯개는 어려움 없이 풀었지만 나머지 두 문제는 도대체 문제 자체를 알 수 없어 막막해했다. 하지만 이들 동안 시험을 치르고 나서는 잘 봤다 못 봤다는 짐작조차 들지 않았고 합격 여부에 대한 생각도 이상스레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험을 보고 대전 집으로 내려가는 대신 나는 형의 하숙방에 그대로 뒹굴면서 형의 서가에서 이런저런 책들을 보며 발표 때까지 시간을 한가하게 보냈다. 이때 토마스 하디의 단편집이 있어 영어 공부 삼아 이 원서를 영어 사전과 씨름하며 읽었고 거기서 하디의 어두운 운명에 대한

집요한 추적에 전율했던 기억이 남아 있다.

합격자 발표 전날 은행에 근무하던 형이 이날은 일찍 퇴근해서 하숙집 아이들과 놀고 있던 나를 불러, 처음에는 “너 떨어졌어” 했다. 그때 내 얼굴이 별안간 하얘졌다고 하숙집 아이가 뒤에 말해줬지만 나 자신은 합격 불합격의 어느 것에도 미리 생각해둔 것이 없었기에 “너 떨어졌어”란 말에 내 눈앞이 하얘졌던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형이 곧 이어 사실은 과의 수석합격이라고 일러줬다. 도대체 이것도 내게는 믿기지 않는 것이었다. 대학원에 적을 두고 있던 형은 과 사무실에 가서 합격자 명단을 봤고 맨 위에 있는 내 이름과 성적까지 확인했다고 했다. 그 성적은 내가 대충 잡아본 지레짐작보다 훨씬 높은 것이었고 나는 내 시험에 매우 짜게 채점했던 모양이었다. 과 수석이란 덕분에 입학 후의 과 환영식에 내가 답사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1년에 10만원을 받는 국비장학생이 됐다.

합격만 해도 다행인 참에 수석에 장학생이라는 과분한 영예까지 얻자 형과 누이만이 아니라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들, 학생회 친구들까지 대견해하며 축하를 해줬지만 나의 대학 생활은 그리 축하받을 만한 것은 못 됐다. 시골의 모범생 수준으로는 서울 출신의 세련된 학생들로부터 오는 문화적 콤플렉스를 피할 수 없었고 또 정치학과라는 데는 고등학교 시절 운영위원장 등을 거쳐 정치가로 야심을 가진 친구들이 대부분이어서 그쪽에 별 뜻이 없던 나로서는 그들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입학한 첫 학기 때는 집으로 자주 내려가 빈둥빈둥 놀며 공부나 독서를 게을리했고 새 친구들도 별로 사귀지 않았다. 학교 수업도 갑자기 어려워져서 내가 따라가기에는 전혀 만만하지 않았다. 1학년 교양과정의 영어교재는 고3 영어교재보다는 두어 단계쯤은 높아진 것이어서 가령 에드가 앨런 포의 <어셔가의 몰락>이며 오 헨리의 <불박이 가구가 달린 방>과 같은 단편을 볼 때는 대학노트 몇 페이지

지에 가득하게 영어 단어를 찾아야 했다. 그러나 그 작품들이 읽기는 힘들었지만 특히 포의 작품은 극히 인상적이었다.

겉멋으로 사들이기 시작한 영어원서

그러나 대학생이 되면서 자연스레 원서를 사들이는 겉멋도 부리기 시작했다. 광화문에 있는 범문사며 범한서적에 가면 이름만 알던 영어 원서들이 가득 진열돼 있었다. 나는 볼 것이든 아니든 그 이름들만 알고 그들의 책을 구경한 적조차도 없었기에 마냥 마음이 혹해서 돈이 닿는 대로 그 책들을 사곤 했다. 플라톤의 《공화국》, 홉스의 《리바이어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으로부터 민병태 교수가 소개한 해롤드 라스키의 《유럽 자유주의의 흥기》 등 몇 권의 저서들, 옥스퍼드에서 간행한 영국 정치사상사 총서, 러셀의 꽤 두터운 《서양 철학사》, 그리고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사회과학·철학·윤리 등 서구의 대표적인 고전을 수록한 두꺼운 포켓판 시리즈, 그리고 카뮈의 불어판 《이방인》과 《페스트》, 도스토예프스키의 영어판 소설 등이 철학과 사상과 문학을 중심으로 한, 그러나 딱치는 대로 이름만 보고 산 것들로 지금껏 기억에 남는 목록들이다. 물론 이런 책을 사기는 몇 해에 걸친 것이고 사 놓고 보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지만, 포켓판 시리즈 중에서 소크라테스의 《변명》, 데카르트의 《방법론》, 밀의 《자유론》은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지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내게 깊은 인상과 영향을 줬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금껏 그 줄거리가 잘 기억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는 거의 의도적으로 문학작품과의 접촉을 피해왔다. 꼭 내켜서는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나는 정치학과 학생이었고 사회과학을 공부해야 했지만, 그래서라기보다는, 처음부터 나는 문학에 상대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다시피 했고 그것이 문학에 거리를 두게끔 했던 것이다. 그런데 1학년 가을이었을 것이다. 《사상계》에 동인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우휘의 중편 <불꽃>이 게재됐는데, 한 젊은 지식인이 한국전쟁 속에서 어떻게 좌절하고 그리고 삶을 선택하게 되는가를 보면서 내 마음은 깊은 울림에 젖어들었다. 그래서 다시 문학책을 들기 시작했다. 그즈음 내가 가장 감동 깊어 해 읽은 것이 《서정주 시초》였고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의 시행들을 외우며 미당의 시는 한국시의 절정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도스토예프스키며 사르트르, 헤밍웨이 등 막 번역돼 간행되기 시작한 정음사판 세계문학 전집들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그리고 1학년 늦가을이었을 것이다. 다시 드문드문 구독하기 시작한 《현대문학》에서 황동규의 시를 발견했다. 뒷날 그의 대표작인 애송시가 된 <편지>가 서정주의 추천을 받은 것이다. 대학 1학

년짜리가 시단에 데뷔한다! 그것은 문학이란 천재의 몫이며 그래서 그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내게 분명 충격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문학을 하겠다는 자극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시인이란 존재는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가 궁금했다. 나는 국비장학생 선발을 위한 전형 때 황동규란 이름을 봤고 그 후로도 같은 캠퍼스에서 마주치며 나 혼자 알아보는 것은 했지만, 이제 어엿한 시인이 된 그 황동규란 학생의 모습을 은근히 엿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마침내 1학년 학년말 시험 때 같은 서울고 출신의 반친구에게 황동규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사람들 사귀기에 무척 수줍은 나로서는 의외의 결단이었다.

문학청년들과의 교류

우리는 2월 하순에 처음 악수를 하고 의대 뒤의 합춘원에서 차를 마셨다. 그는 내가 시골출신 학생이고 정치학과생이라는 데 아무런 개의 없이, 만나자마자 자신의 시, 읽은 책, 공부한 영국문학 등만이 아니라 음악, 미술 등을 가림없이 한없는 이야기들을 풀어놓았다. 그는 아는 체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현학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솔직하면서도 열정적이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 자신을 갖고 있었고 견해가 분명했다. 나는 오래 익은 친구들 대하듯 하는 그의 말들을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면서 감탄했고 놀랐고 경복했다. 아, 이 친구야말로 천재고 또 시인이다! 그는 스스럼없이 나를 친구로 대해줬고 또 만나기로 했으며 그래서 나는 회현동의 그의 집에 놀러갔다. 그리고 이어진 봄방학 때 그가 대전으로 내려와 함께 계룡산 감사에 가, 여관의 한방에서 밤새 즐기차게 들려오는 골짜기 물소리와 더불어 그의 사랑 이야기까지 덤으로 들으며 문학과 시를 향한 그의 정열에 사로잡혔다. 개강하고 2학년이 되면서 나는 그와 더 자주 만나고 어울리고 당구도 치고 명동의 술집에도 들락거렸고, 그의 아버지 황순원 선생을 처음 뵈었고 그의 친구 마종기와 서승해(서정주 선생의 아들), 법대의 백충현, 사회과학의 김준길, 성균관대의 이증한 등과 잇달아 사귀게 됐다. ●



수석합격에 국비장학생으로 정치학과에 입학하기는 했지만 대학생활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다. 특히 지방의 모범생 출신인 나는 서울 출신의 세련된 학생들에게서 모한 콤플렉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진은 서울대 문리대 2학년 시절, 정치학과 동기생 김석규(앞줄 오른쪽), 이재술씨와 함께.